

편집 후기



84년은 격변하는 국제정세와 주위환경 속에서도 여러 분야에서 각기 착실한 발전과 성장을 추구해온 바쁜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그런가하면 크고 작은 사고와 재난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했던 안타까움과 함께 甲子年을 뒤로하고 乙丑年의 새아침을 맞이하였다.

언제나 그러하듯 새해가 밝아오면 지난 해에 대한 미련과 할일을 다하지 못한 자책으로 허탈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그러나 한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본지에 게재할 원고를 청탁할 때와 업계탐방을 위해 취재에 나섰을 때 가는 곳마다 반갑게 맞아 주었고 필요한 자료들을 선선히 제공해 주는 등 취재활동에 적극 협조해 준데 대한 고마움을 잊을 수 없다.

특히 이번 호에는 각계 인사들의 「새해실제와 전망」을 특집으로 엮는등 다양한 소재로 읽을 거리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으나 미흡하다는 생각은 역시 변함이 없다.

다만 독자제현의 너그러운 아량과 따뜻한 충고를 기대하면서 본지가 한겨울의 혹한과 함께 분투하시는 독자여러분의 일상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할 뿐이다. (宋)

한해를 보내는 사람들의 마음이야 그 누군들 아쉬움이 없으려만, 「방재와 보험」을 보다 알차고 내용있는 책으로 만들고자 노력해온 편집자에게는 한층 더 아쉬움이 남는다.

원고와 씨름하면서 연말을 분주하게 보낸 만큼 「겨울호」에 대한 미련은 각별할 수 밖에 없다.

다음호에 또 기대를 걸면서 「방재와 보험」지 독자여러분과 옥고를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새해에는 행복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해본다. 아울러 「방재와 보험」을 계속 아껴줄 것을 간절히 바란다. (洪)

산고 끝에 「방재와 보험」지 겨울호가 땀겨울을 울리며 선을 보이게 되어 대견하고 자랑스러운 것은 나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천층만층 염려를 해 주신 워분들의 기대에 조금이나마 부응해야 할텐데, 증가집 며느리처럼 칭찬받기가 어디 그리 쉬운가?

많은 아쉬움과 미련을 접어두고 봄호에 기대를 걸면서 독자 여러분에게 새해 인사를 드린다.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십시오.” (趙)

투고를 환영합니다

계간 「방재와 보험」은 방화관련 종사자는 물론 보험 관계자와 방재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방재와 보험」지에 유익한 내용이라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낼곳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우편번호 150)

본협회 홍보부 방재와 보험 담당자 앞

문의전화: 782-8156

□ 게재된 원고에는 소정의 고료가 지급됩니다.

防災와保險

1984/겨울호
계간/비 매 품

(통권제24호)

등록 / 마-827호 (1973년10월11일)

발행 / 1985년 1월 1일

인쇄 / 1984년 12월 31일

발행겸 편집인 / 이대용

인쇄인 / 성전문화인쇄 / 강재수

사진식자 / 국보기획

발행처 / 한국화재보험협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편집실 / 직통 782-8156

※ 본지는 한국도서잡지윤리실천강령을 준수한다